

“가속력·주행 만족”...SM6, 중형 세단의 교과서

유럽서 인정받는 우아한 디자인
인카페이먼트 등 편의사양 강화
마사지 시트로 장거리 운전 편안



SM6 TCe 300은 르노그룹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과 르노 R.S. 모델에 탑재돼 성능을 검증받은 고성능 엔진으로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여유로운 성능을 발휘한다. 차량용 결제서비스인 '인카페이먼트'와 긴급구조 서비스인 '어시스트 콜' 등 강화된 커넥트 서비스도 매력적이다. 원성열 기자

엔진형식	터보 직분사 가솔린
배기량	1789cc
최고출력	225/5600(ps/rpm)
최대토크	30.6/ 2,000~4,800(kg·m/rpm)
변속기	7단 DCT
공인 복합연비	11.6km/L
가격	3387만원

변속기가 조합된 TCe 300 모델이었다. TCe 300은 르노그룹의 고성능 브랜드 알핀(Alpine)과 르노 R.S. 모델에 탑재돼 성능을 검증받은 고성능 엔진이다. 최고 출력은 225마력, 최대 토크는 30.6kg·m이다. 2000~4800rpm 구간에서 최대 토크가 발휘돼 장거리 고속도로 주행시 한결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 구간에서의 추월 가속 능력도 경쾌한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다이내믹한 주행이 가능한 파워를 지니고 있다. 핸들링 성능은 서킷 주행도 무리가 없을 만큼 정교하다.

장거리 주행으로 체감한 전반적인 승차감도 중형 세단 중에서 상위급에 속할 만큼 편안하다. TCe 300 모델의 공인 복합 연비는 11.6km/L(도심 10.2km/L, 고속도로 13.9km/L)지만, 고속도로 위주의 장거리 주행에서는 14.5km/L라는 기대 이상의 실연비를 보여줬다. TCe 300 모델의 가격은 3387만 원부터다.

강원 |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전기차, 한국선 생산 안한다”

키퍼 GM 부사장 “한국공장은 CUV 차량 집중”
한국GM, 2025년까지 수입 전기차 10종 출시



한국GM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GM의 전기차 라인업을 2025년까지 10종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이 전기차들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되며, 한국 공장에서의 생산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 담당

한국GM은 12일 인천 부평구 GM 디자인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GM의 사업현황과 미래 전략을 공개했다.

간담회에는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 겸 해외사업부 담당(GM) 사장과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 로베르토 램펠 GM 테크니컬 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스티브 키퍼 GM 수석부사장은 간담회에서 “2025년까지 한국시장에 새 전기차 10종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급형 모델부터 고성능 차량, 트럭,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크로스오버, 럭셔리 차량까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다양한 가격대의 전기차들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 고객들이 GM의 전기차 포트폴리오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날 간담회의 최대 관심사였던 전기차의 한국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혀 아쉬움을 남겼다. GM의 미래전략 중 한국에서의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다는 것은 한국GM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물음표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키퍼 사장은 “전기차를 한국에서 생산할 계획은 없으며, 기존 발표된 차량 외에 추가 제품 생산 계획도 없다”면서 “2023년 한국에서 출시되는 글로벌 크로스오버(CUV) 차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GM은 2025년까지 40조 원을 투입해 30종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하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전동화 비전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한국GM의 경우 2023년 출시되는 CUV 외에 아직 확정된 신차가 없다.

키퍼 사장은 “한국 사업은 경쟁력과 수익성이 핵심”이라며 “2023년에 출시될 예정인 글로벌 CUV의 제조 품질, 신차 출시 과정의 우수성에 집중하는 동시에 비즈니스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허 카젠 한국GM 사장은 “국내 생산 제품과 GM 글로벌 수입 제품의 ‘투 트랙’ 전략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국내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GM은 쉐보레 플레그십 SUV 타호와 픽업 트럭 GMC 시에라를 2022년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편집 | 김대진 기자 bong82@donga.com

르노삼성의 중형 세단 SM6가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이지 커넥트(EASY CONNECT)’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트림별 기본 사양을 재구성해 가성비 높은 2022년형 SM6를 선보였다. 경쟁자가 즐비한 D세그먼트 중형 세단 시장에서 SM6는 어떤 차별화된 장점을 지니고 있을까. 서울에서 강릉까지 왕복 500km 구간에서 SM6 TCe 300 모델을 시승했다.

●우아한 디자인과 강화된 편의사양

SM6의 가장 큰 매력은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우아한 디자인에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적인 디자인의 힘은 SM6를 시간의 흐름과 무관하게 한결같이 세련되게 보이게 해주는 원동력이다. 언제 봐도 질리지 않는 자동차 디자인의 표본처럼 느껴진다.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디자인은 그대로지만 ‘인카페이먼트’와 ‘안전 지원 풀 서비스’ 등의 기능을 새롭게 추가해 변화를 줬다.

인카페이먼트는 CU 편의점과 식음료 가맹점 메뉴를 차 안에서 확인하고, 주

문과 픽업까지 가능하도록 한 르노삼성 자동차의 모빌리티 커머스 차량용 결제 서비스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결제까지 가능한 비대면 주유도 가능하다.

차량 사고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24시간 운영 전담 콜센터를 통해 긴급구조 신고 및 사고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인 안전지원 콜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했다. 에어백이 작동하는 차량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이 능동적으로 차량 위치를 콜센터로 전송하고 긴급 구조 및 사고처리 지원을 진행한다.

차량 고장 발생 시 견인 또는 서비스 거점 안내를 지원하는 ‘고장 헬프 콜’ 기능도 탑재해 사고 처리를 더 편하게 해준다.

●장거리 주행으로 확인된 편안함

2022년형 SM6에는 내비게이션 지도와 경로를 10.25인치 클러스터 화면에 표시하는 ‘맵 인 클러스터’ 기능이 추가돼 초행길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까지 장착된 마사지 시트도 중형 세단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옵션이자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줄여주는 핵심 기능이다. 또한 야간 주행 시 전방 상황을 따라 영역별 밝기를 정교하게 조절해 SM6 운전자의 시야 확보는 물론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눈부심까지 방지해 주는 ‘LED 매트릭스 비전 헤드램프’를 새롭게 탑재해 야간 운전의 안전성도 한층 높였다.

시승차는 1.8 가솔린 엔진에 7단 DCT

‘아이언맨차’ 아우디 e-트론 GT...제로백 3.3초 가속성능에 감탄

(RS e-트론 GT)

전자식 콕트로 탑재해 핸들링도 편안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2종 연내 출시



9월 열린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미디어 로드쇼 행사 중 아우디 e-트론 GT가 짐카나 코스를 주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아우디코리아

아우디코리아가 영화 ‘어벤저스-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의 차로 등장하며 화제를 모은 아우디 e-트론 GT와 아우디 RS e-트론 GT를 연내 출시하고, 국내 고성능 전기차 시장에 진출한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해 7월 선보인 전기 SUV e-트론 55콕트로(e-트론 50 콕트로, e-트론 스포츠백 50 콕트로 등 파생 모델 포함)로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으며, e-트론 GT와 RS e-트론 GT를 통해 포르쉐 타이칸이 선점하고 있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제로백 3.3초, 압도적인 가속력

아우디 e-트론 GT와 아우디 RS e-트론 GT 시승은 9일 서울~과천~정선을 잇는 구간에서 열린 아우디 익스피리언스 미디어 로드쇼 행사 중 빈 주차장이나 공터에서 짧고 복잡하게 구성된 주행 코스의 랩타임

을 겨루는 ‘짐카나’ 프로그램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행 실력에 따라 짧게는 42초대~1분가량이 걸리는 짐카나 코스를 2회 주행하는 짧은 시승이었지만 e-트론 GT와 RS e-트론 GT의 가공할 가속력과 날카로운 핸들링을 경험하기에는 충분했다.

e-트론 GT와 RS e-트론 GT는 앞 뒤 차축에 두 개의 강력한 전기 모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각각 390kW(530마력), 475kW(646마력)의 최대 출력과 65.3kg·m, 84.7kg·m의 강력한 토크(부스트 모드 사용 시)를 발휘한다. 제로백(0~100km 가속에 걸리는 시간)은 e-트론 GT가 4.5초(부스트 모드 사용시 4.1초), RS e-트론 GT가 3.6초(부스트모드 사용시 3.3초)다.

짐카나 코스는 직선 구간-유턴-고속 슬라럼-유턴-직선 구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직

선 구간에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니, 최대 토크가 즉각 발휘되는 전기차의 특성과 최대 출력 84.7kg·m이라는 RS e-트론 GT의 엄청난 토크가 맞물려 일반 내연기관 고성능차와는 차원이 다른 가속감을 경험할 수 있었다.

비가 내려 노면이 약간 젖은 상태였지만, 길게 늘어난 라바콘(안전 고깔)을 좌우로 통과하며 핸들링 성능을 경험할 수 있는 슬라럼 구간에서 e-트론 GT와 RS e-트론 GT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매끄럽게 주행해나갔다. 네 바퀴에 토크를 최적으로 분배해주는 전기 사륜구동 시스템인 전자식 콕트로를 탑재한 덕분이다. 빠른 코너링의 경우 후륜 구동용 전기 모터가 활성화되는 데 이는 기계식 콕트로 구동보다 약 5배 더 빠르다.

또한 두 차량에는 93.4kWh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으로 e-트론 GT는 최대 488km(WLTP 기준), RS e-트론 GT는 472km의 주행이 가능하다. 연내 국내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 및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 원성열 기자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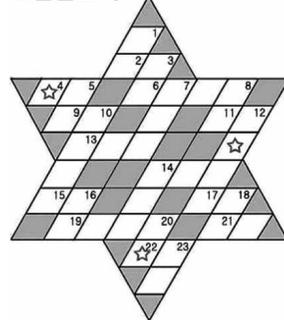
■ 스도쿠문제

		4				2		
	6		5				7	
1	7			9			3	6
	9		2	7	3		4	
		7				6		
	4		6	8	1		2	
7	1			5			6	2
	2				9		5	
		5				4		

■ 스도쿠정답

4	6	7	9	2	1	5	8	3
8	5	1	6	8	2	9	2	7
2	9	8	7	9	8	6	1	4
6	2	4	1	8	9	8	7	9
8	1	9	5	7	6	2	4	8
5	7	8	2	7	1	6	9	3
9	8	5	2	6	7	8	4	1
7	4	6	8	1	5	2	9	8
1	8	2	4	9	8	7	5	6
6	8	2	1	7	9	9	8	4
9	1	2	1	6	8	2	7	9
7	9	8	2	7	5	8	1	6
8	5	1	9	8	2	6	2	7
9	6	7	8	2	7	1	1	8
2	2	8	6	1	7	9	9	2
4	7	9	8	8	4	6	1	
8	8	6	7	9	1	7	2	9
1	4	9	7	2	6	8	9	8

■ 낱말문제



■ 가로열쇠

02. 우연히 만남. 04. 절인 배추 따위에 고춧가루, 파, 마늘 따위의 양념에 버무린 뒤 발효를 시킨 음식. 06. 산과 내의 풀과 나무라는 뜻. 09. 노엽

거나 분한 마음. 11. 첫째가는 큰 공훈. 13. 가계에 내다 팔려고 날림으로 만든 물건. 14. 작고 속력이 빠른 배. 15. 익은 농작물을 거둬들임. 17. 별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 19. 몹시 놀라 얼굴빛이 하얗게 질림. 21. 집을 떠나감. 22. 창문 따위를 내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받아 들임.

■ 세로열쇠

01. 낚시를 하러 나섬. 03. 피고 접을 수 있어 비가 올 때 머리 위를 가리는 우비의 하나. 05.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됨. 07. 천대를 받는 사람이 물건. 08.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기구 따위를 만드는 일로 업을 삼는 사람. 10. 자기 눈에 물을 끌어 단다는 뜻. 12. 백성을 가르치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놓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타 이름이 됩니다.

